

구라쿠 마쓰에몬의 옛 저택

에도 시대(1603~1867) 후기에 다카사고 지구에 세워진 전형적인 상인 주택 건물입니다. 다카사고에서 태어난 사업가이자 발명가인 구라쿠 마쓰에몬(1743~1812)의 후손이 몇 세대에 걸쳐 살았습니다. 구라쿠 마쓰에몬은 주로 해운, 항만시설 개량, 항해술과 관련된 몇 가지 발명을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발명품인 마쓰에몬 범포는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면직 범포입니다. 마쓰에몬 범포로 만들어진 돛은 기존에 사용하던 배의 돛보다 훨씬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에도 시대 일본 해역의 물자 수송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지은 지 200년 가까이 된 이 집은 마쓰에몬의 후손이 거처로 삼아 점포와 창고를 겸해 지은 건물입니다. 구라쿠 일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3~4 세대가 이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은 16개월 이상에 걸쳐 2018년에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복도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면 지붕을 지탱하는 인상적인 골조가 보입니다. 벽에는 아마 당시 사용되었을 흰 회반죽이 칠해져 있으며, 지붕의 천장은 건물 안으로 빛을 들이고 조리하는 불에서 나는 연기가 빠져나가게 되어있습니다.

1층에는 일상생활 공간과 더불어 작업실 및 응접실이 있습니다. 복도로 이어져 있는 주방에는 화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층에 걸쳐 당시의 가구, 가업과 관련된 간판, 서류 등이 다수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서양식 응접실과 아이 방이 있습니다. 놓여있는 지도와 스케치는 대부분 에도 시대의 것이며, 배 모형도 몇 개 있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채석한 석재를 훗카이도로 운반하기 위해 구라쿠가 설계하고 건조한 선박의 복제품입니다. 일족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마도 있습니다. 덧붙여 2층으로 가는 계단은 가파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안쪽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에 있는 우물과 취사장은 당시 흔히 볼 수 있던 것입니다. 집 외벽에는 오래된 선박의 목재가 재이용되었습니다.

현재, 이 집과 정원에서는 현지 사진가와 예술가가 작업한 마을 사진과 그림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원에서는 현지 장인과 생산자가 모여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종종 열립니다. 이 집은 구라쿠 가문이 시에 기증한 후 효고현 지정문화재가 되었습니다.